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이혼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II)*

- 1940~1990년대 조선·동아일보를 중심으로 -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Divorce(II)*

- Focusing on Chosun and Donga from the 1940's to 1990's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기금조교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이 강 이

박사과정 최 혜 영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University-funded Assistant Professor & Researcher of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 Lee, Kangyi

Doctoral Course : Choi, Heayoung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연구방법

III.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In this study, the major tendencies of divorce as represented in articles of Korea's major daily newspapers from the 1940's to the 1990's were explored.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content analysis, and 1,741 articles related to divorce were selected for analysis from the Chosun and Donga. The mai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were classified as attitude toward divorce(negative, accepting, neutral), present condition of divorce(statistics, survey, analysis), cause of divorce(marital conflict, conflict with family, health-related troubles, financial troubles, and others), and information offered about divorce(related-laws, prevention and adaptation, and 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ost frequently found category was information offered about divorce, and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featured in the newspapers in the order of cause of divorce, present condition of divorce, and attitude toward divorce. 2) The major discussions of divorce as represented in articles of Korea's daily

Corresponding Author: Kangyi Lee,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San 56-1 Shillim-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1452 Fax: 822-871-2506 E-mail: kangyil@snu.ac.kr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이 논문은 2005년도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임.

newspapers from the 1940's to 1990's have been reflecting the changes of related laws, policy and legislation in our society. 3) The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divorce indicated that concepts of marriage, divorce and family in our society have been diversified.

주제어(Key Words): 이혼(divorce),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1. 문제의 제기

2003년 한 해의 총 이혼건수 167,096건,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 3.5건(통계청, 2004)이라는 수치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일부 예외적인 사람들만 경험하는 생활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혼의 실행이라는 사회적 양상의 변화와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호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나의 이혼과 남의 이혼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난다. 선행연구(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 1998, 2000; 한경혜, 이정화, 2002)에 의하면, 도시 및 농촌에 거주하는 성인의 상당수가 최근 한국사회의 이혼 증가 현상에 대해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의 원인을 당사자들 간의 성급한 판단으로 돌리는 상호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또한 나와 상관 없는 사람들의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바로 나 자신이나 내 자녀의 경우가 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뿐더러 실제로 이혼을 경험한 주변 사람들의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이혼을 둘러싼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혼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혼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시각이나 상호 모순된 태도를 탈피하고 이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동시에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혼을 바라보는 일반인의 태도 내지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신문이라는 매체를 들 수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매일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신문은 대중전파력이 높은 매체로, 사회구성원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회문제와 관련

된 여론과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기도 한다(이준우, 1987; 차배근, 1991). 따라서 신문을 통해 이혼과 관련하여 어떤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 특정한 시대에서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당시 사회구성원의 인식 형성과정도 관련된다(이강이, 최혜영, 2004).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혼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1920~30년대의 이혼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이강이, 최혜영, 2004), 이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변화의 양상은 그 당시부터 이미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20~30년대에는 당시의 시대 사조였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 신여성의 등장과 맞물려 이혼 현상을 바라보았고, 이혼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는 비판과 수용, 그리고 중립의 의견이 골고루 등장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혼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도상의 문제로 분석해서 접근하거나 이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등 신문 기사를 통해 이혼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차 구체화되어가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방 이전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이혼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의 가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전과 달리, 요즘의 젊은이들은 성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더러, 결혼을 한다고 해도 꼭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계청(2002)에 의하면,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6.7% 감소하고 독신가구나 무자녀 가구는 각각 6.0%,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 가족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제의 폐지를 결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중앙일보, 2005. 3. 3 일자). 해방 이후 한 세기가 채 안 되는 기간에 호주제의 폐지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반세기 동안 한국의 가족이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었음을 반증한다.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를 간단히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40~1950년대는 혼란과 궁핍으로 대표되는 시기다. 세계 2차대전 말기부터 일제에 의한 징용징병으로 많은 가족이 남성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미망인을 비롯한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의 경제 책임과 권리를 담당하게 되었다(이림하, 2002). 이 와중에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극도의 궁핍과 혼란이 지배했던 이 암울한 시기에는 가족의 생존이 가장 큰 삶의 목표였다. 1960년대 이후는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업화와 공업화 및 그에 따른 도시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상품화로 인해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도 가족을 소규모화, 사적화 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박민자, 1998). 1960년대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였던 만큼 아직은 빈곤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국가 경제의 부흥을 위해 산업현장에 뛰어들었다. 새마을 운동은 범국민적 사회개혁운동으로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켰고, 근대적 정신이 발전하는 계기로 도시화에도 많이 기여해서 국가적으로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이인수, 2003).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이제 어느 정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주거양식과 자동차의 빠른 보급, 가족단위 여가문화의 발달과 같은 새로운 생활양식은 1970년대부터 자리잡기 시작한 핵가족적인 정체성과 규범의 확산 및 강화에 기여했다(이인수, 2003). 또한 민주화를 향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그 동안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에 은폐되어 오던 개별 가족구성원의 요구가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화의 영향력이 강해지기 시작(조영훈, 2004)한 1990년대는 이전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시기(함인희, 1993)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

한 도시화와 산업화, 그에 따른 일상생활양식의 변화, 가족제도 및 가족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변화는 이혼을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인식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혼에 대한 1920~30년대의 인식과 논의를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에 이어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복간된 이후부터 21세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1999년까지 등장했던 이혼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이혼관련 기사의 주제유목별 및 연대별 빈도를 살펴보고 둘째,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네 시기로 나누어 이혼관련 기사가 시대별로 어떤 주제를 다루었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셋째, 이 연구를 통해 1940~1990년대 동안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의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940~1990년대의 신문에 나타난 이혼의 주제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연구(I)의 후속 연구로서 연구의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및 분석유목 선정, 분석단위와 자료 분석을 연구(I)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분석대상

이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1945년 해방과 함께 복간(조선일보의 경우 11월, 동아일보의 경우 12월)된 이후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실린 기사 중 이혼에 관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문기사 중 제목 또는 소재목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모두 선정한 결과, 총 1,741건의 기사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이 연구에서는 광고와 독자투고 및 TV 프로그램 소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개 신문의 기사내용이 중복된 경우에는 1개 신문의 기사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분석유목

이 연구에서는 이혼관련 선행연구(김병찬, 1997; 변화순, 1996; 장혜경, 민가영, 2002)를 참조하여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을 이혼에 대한 태도, 이혼현황, 이혼원인 및 정보제공으로 선정할 후, 각각을 다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이혼현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나 인식의 측면을 다룬 '이혼에 대한 태도' 기사는 이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 또는 '중립'의 입장을 보이는 기사로 나누었으며, '이혼현황'은 '이혼관련통계', '여론조사' 및 '이혼실태분석'으로 하위영역을 나누었다²⁾. '이혼 원인'은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문제', '경제문제' 및 '기타원인'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으며³⁾, '정보제공'은 '이혼관련법안', '이혼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 그리고 '기타정보'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⁴⁾. 분석유목의 선정과 하위유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가족학전공 박사 2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기사의 주제유목과 각각의 하위유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구(1)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3. 분석단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기사(item)로, 복간된 이후부터 1959년까지의 기사 75건, 1960~1969년까지의 기사 190건, 1970~1979년까지의 기사 206건, 1980~1989년까지의 기사 440건, 1990~1999년까지의 기사 830건으로 총 1,741건이 분석되었다. 먼저 신문기사 중에서 이혼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추출된 이혼 관련 기사를 분석유목에 따라 분류하였다.

유목 분류 작업은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주제유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제목 및 소재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따랐다. 본격적인 유목 분류 작업에 앞서 분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174건(10%)의 견본 사례를 가지고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3인을 대상으로 분류자간 분석 일치정도를 측정할 결과, 신뢰도 계수가 .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전 분류 작업에서 불일

치를 보인 유목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쳐 분류기준을 확정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총 기사건수와 각 분석유목 및 해당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기사건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연대별 빈도 분포의 경향을 살펴보고 시대별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내용분석 결과 및 해석

1.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및 연대별 빈도 분포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이혼관련 기사를 주제유목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체 1,741건의 기사 중 정보제공 유목이 1,344건(77.2%)으로 나타나서 1920~30년대의 25.2%(이강이, 최혜영, 2004)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1,344건의 정보제공 기사에 대해 하위영역별 빈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기타정보가 1,165건(86.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 2) '이혼관련통계'는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혼관련 통계 수치의 보도 기사를 의미하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등의 사설 기관에서 일반인의 이혼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조사해서 보도한 기사를 말한다. '이혼실태분석'은 기존에 발표된 이혼 관련 자료를 모아 이혼실태의 분석을 시도한 기사를 말한다.
- 3) 이혼이 성립되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를 다룬 '이혼원인' 기사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문제로 인한 이혼을 다룬 '부부불화'와 부부 이외의 가족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다룬 '가족간불화', 타고난 질병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문제로 이혼이 청구 또는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강상의 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경제문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며, '기타원인'은 이외의 원인으로 결혼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을 청구하거나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를 다룬 기사를 말한다.
- 4) 이혼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기사는 이혼관련법안의 내용을 보도한 '이혼관련법안'과 이혼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 이후의 적응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 그리고 이외의 정보를 다룬 '기타정보'의 하위영역으로 나뉜다.

〈표 1〉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빈도 분포

주제유목	빈도(%)	하위유목	빈도(%)
이혼에 대한 태도	48(2.8)	비 판	11(22.9)
		수 용	4(8.3)
		중 립	33(68.8)
이혼현황	173(9.9)	이혼관련통계	67(38.7)
		여론조사	33(19.1)
		이혼실태분석	73(42.2)
이혼원인	176(10.1)	부부불화	53(30.1)
		가족간 불화	18(10.2)
		건강상 문제	18(10.2)
		경제문제	11(6.3)
		기 타	76(43.2)
정보제공	1,344(77.2)	이혼관련법안	115(8.5)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	64(4.8)
		기타 정보	1,165(86.7)
총 기사건수	1,741(100)		

으며, 다음으로 이혼관련 법안을 다룬 기사 115건(8.5%),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과 관련된 기사 64건(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제유목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혼원인 유목의 기사로 총 176건(10.1%)을 차지했다. 176건의 이혼원인 기사 중 기타의 사유가 76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 불화 53건(30.1%), 가족간불화와 건강상 문제가 각각 18건(10.2%)씩, 그리고 경제문제 11건(6.3%)의 순이었다. 이혼현황 유목의 기사는 총 173건(9.9%)으로, 이 중 이혼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당시의 이혼실태 분석을 시도한 기사가 73건(42.2%)이었고, 이혼관련 통계 수치를 제시한 기사가 67건(38.7%), 여론조사 내용을 다룬 기사가 33건(19.1%)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태도 유목은 전체 1,741건 중 48건(2.8%)을 차지해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1920~30년대(이강이, 최혜영, 2004)와 비교해서도 줄어든 것이다. 48건의 기사 중 중립 기사 33건(68.8%), 비판 기사 11건(22.9%), 수용 기사 4건(8.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2〉의 연대별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1940~1950년대의 이혼관련기사는 총 75건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4.3%를 차지했는데, 1920년대의 231건, 1930년대의 201건(이강이, 최혜영, 2004)과 비교할 때 이전에 비해 이혼관련기사가 감소했음을 알 수

〈표 2〉 이혼관련기사의 연대별 빈도 분포

주 제 유 목	빈도(%)			
	1940~50년대	1960~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혼에 대한 태도	2(100)	6(100)	15(100)	25(100)
비판	1(50.0)	0(0.0)	1(6.7)	9(36.0)
수용	0(0.0)	0(0.0)	0(0.0)	4(16.0)
중립	1(50.0)	6(100)	14(93.3)	12(48.0)
이혼 현황	13(100)	11(100)	47(100)	102(100)
이혼관련통계	11(84.6)	3(27.3)	14(29.8)	39(38.2)
여론조사	0(0.0)	0(0.0)	14(29.8)	19(18.6)
이혼실태분석	2(15.4)	8(72.7)	19(40.4)	44(43.2)
이혼 원인	33(100)	28(100)	10(100)	105(100)
부부불화	24(72.7)	8(28.6)	2(20.0)	19(18.1)
가족간불화	0(0.0)	2(7.1)	2(20.0)	14(13.3)
건강상문제	1(3.0)	3(10.7)	2(20.0)	12(11.4)
경제문제	1(3.0)	1(3.6)	0(0.0)	9(8.6)
기타	7(21.3)	14(50.0)	4(40.0)	51(48.6)
정보 제공	27(100)	351(100)	440(100)	830(100)
이혼관련법안	6(23.1)	13(3.7)	30(8.1)	66(11.1)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	0(0.0)	2(0.6)	23(6.3)	39(6.5)
기타정보	21(76.9)	336(95.7)	315(85.6)	493(82.4)
합 계	75	396	440	830

있다. 이 당시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를 살펴 보면, 이혼원인 유목이 33건(4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7건(36.0%), 이혼 현황 13건(17.3%), 이혼에 대한 태도 2건(2.7%)의 순서로 나타났다. 1940~1950년대의 각 주제별 하위영역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이혼 원인의 경우 부부불화가 24건(7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원인이 7건(21.3), 건강상 문제와 경제문제가 각각 1건(3.0%)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기사는 기타정보가 21건(76.9%), 이혼관련법안이 6건(23.1)이었다. 이혼 현황의 경우 이혼관련통계가 11건(84.6%), 이혼실태분석이 2건(15.4%)이었고, 이혼에 대한 태도 기사는 비판과 중립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1960년~1970년대의 이혼관련 기사는 총 396건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22.7%를 차지했다. 이 당시의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유목이 351건(8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이혼원인 28건(7.1%), 이혼현황 11건(2.8%), 이혼에 대한 태도 6건(1.5%)의 순서로 나타났다. 1960년~1970년대의 각 주제별 하위영역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기사는 기타정보가 336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혼관련법안이 13건(3.7%),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가 2건(0.6%)이었다. 이혼원인 기사는 기타 원인이 14건(50.0%)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부부불화 8건(28.6%), 건강상 문제 3건(10.7%), 가족간 불화 2건(7.1%), 경제문제 1건(3.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혼현황기사는 이혼실태분석이 8건(72.7%), 이혼관련통계가 3건(27.3%)이었고, 이혼에 대한 태도에 속하는 6건의 기사는 모두 중립에 해당했다.

1980년대의 이혼관련 기사는 총 440건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25.3%를 차지했다. 이 당시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유목이 368건(8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이혼현황 47건(10.7%), 이혼에 대한 태도 15건(3.4%), 이혼원인 10건(2.3%)의 순서로 나타났다. 1980년대의 각 주제별 하위영역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기사는 기타정보가 315건(8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혼관련법안이 30건(8.1%),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문제가 23건(6.3%)이었다. 이혼현황 기사는 이혼실태분석이 19건(40.4%), 이혼관련통계와 여론조사가 각각 14건(29.8%)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태도 기사는 중립이 14건(93.3%), 비판이 1건(6.7%)으로 나타났다. 이혼 원인 기사는 기타원인이 4건(40.0%)이었고, 부부불화, 가족간 불화, 건강상 문제가 각각 2건(20.0%)씩 차지했다.

1990년대의 이혼관련 기사는 830건으로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47.7%를 차지했다. 이 당시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 유목이 598건(72.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이혼원인 105건(12.7%), 이혼현황 102건(12.3%), 이혼에 대한 태도 25건(3.0%)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각 주제별 하위영역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정보제공의 경우 기타정보가 493건(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혼관련 법안 66건(11.1%), 이혼전후개입 39건(6.5%)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혼현황의 경우 이혼실태 분석 44건(43.2%), 이혼관련 통계 39건(38.2%), 여론조사 19건(18.6%)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이혼원인 기사는 기타 원인이 51건(48.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부부불화 19건(18.6%), 가족간 불화 14건(13.3%), 건강상 문제 12건(11.4%), 경제문제 9건(8.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혼에 대한 태도 기사를 살펴보면, 중립 12건(48.0%), 비판 9건(36.0%), 수용 4건(16.0%)으로 나타났다.

2. 이혼관련기사의 연대별 내용분석

1) 1940~1950년대의 이혼관련기사

이 시기의 이혼관련기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하위영역은 이혼원인 유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혼의 발생이 해방 이후의 혼란과 전쟁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행방 불명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거나(조선, 59. 3. 16일자), 월북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조선, 59. 4. 14일자), 제일교포 복송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동아, 59. 12. 10일자)가 눈에 띈다.

六·二五 사변 당시 행방불명이 된 남편을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을 十六일 상오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사

람이 있다. 동 소송은 六·二五 당시 전쟁미망인으로 된 김숙기씨를 상대로 한 것인데 원고는 十三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던 것이나 남편이 六·二五당시 피뢰의용군으로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던 나머지 다시 개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 59. 3. 16).

한편 이혼에 대한 정보제공 기사를 살펴보면, 1957년에 민법이 제정되고 이후 1958년과 1960년에 각각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관련된 간통 쌍벌죄와 남녀평등에 입각한 결혼과 이혼의 자유, 부부별산제 채택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고⁵⁾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법조항을 소개하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띈다.

재산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재산계약을 인정하고 소유재산에 대한 남편의 관리사용수익권을 폐지하여 부부는 각자의 특유재산을 자유롭게 관리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였다(조선일보, 59. 11. 20).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입장에 있었던 여성의 입장에서 이혼 관련 법규정의 내용 변화를 소개하는 것이 눈에 띄는데, 다음의 기사에서는 새 민법 개정에 따른 이혼관련 규정 변화를 소개하고 이것이 '부부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 하는 변화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간통은 처에 대해서만 이혼 원인이 되고 남편의 경우는 간통으로 處刑되었을 때에만 이혼 원인이 되고 있다. 새 民法는 이러한 부부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배우자에 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 八四 조 제 一호)라고 규정하여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시켰다. 또 相對的 離婚原因主義를 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제 八四 조 제 六호)(조선일보, 59. 12. 6).

일부일처제의 확립과 여성권익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문제의식이 서서히 확산(이림하, 2002)되면서 이것이 이혼 관련 법조항의 변화로 연결되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는 1920년대 이후로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매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오던 처첩제에 대한 비판이 일반 독자라든가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남편이 본부인을 놔두고 첩살이 하는 것을 참지 못해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기사는 1920~1930년대(이강이, 최혜영, 2004)에 이어

1940~195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름난 대학교수의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 원고인 俞여사는 피고인 남편 閔씨가 첩을 얻은 후부터 이래 십一年간 생활비는 고사하고 전연히 돌보지 않기 때문에 「유기」를 당하였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한편 오백만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하였다(동아일보, 56. 6. 22).

1940~1950년대의 한국 사회는 대다수 국민이 절대 빈곤이 시달리던 시기로, 가족 내 인간관계의 부조화와 갈등보다는 생존에 관련된 빈곤문제가 더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이인수, 2003). 개인의 삶의 목표는 곧 가족 중심의 생존이라는 목표와 동일시되었고, 부부갈등처럼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전쟁이라는 당시의 특수 상황이 가족을 위적인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혼이 발생되는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도 발견되는 바, 정치·사회적 혼란상과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발생이나 이혼 양상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 시기의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1960~1970년대의 이혼관련기사

먼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이후 진행된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는 이혼향도의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도시의 핵가족화를 촉발시켰다. 산업화의 진행 속에 갈등하는 전통과 근대의 의식간의 차이로 인한 가족지체의 문제가 서서히 증가(이인수, 2003)했고, 특히 1970년대 이래로 한국 가족에서의 삶은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삶을 보이기 시작했다(서선희, 2003). 이러한 변화는 이혼관련기사의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1960~1970년대에는 개인의 권리 차원으로 이혼에 접근하거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한다. 예컨대, 이혼을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식으로 어느 한

5) 예를 들어, 1958년에 개정된 민법은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기존 법과는 달리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과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했고, 1960년의 민법 개정에서는 법률상 행위무능력자였던 가정주부가 독립된 인격자로 인정되면서 남녀평등권이 실현되었다.

쪽의 가치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태도로 왜 이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당시 제도상의 문제점과 연관시켜 지적하고 있다⁶⁾.

그런데 이혼이라든가 남편이 죽는다든가 하여 혼인관계가 끝나버릴 때 아내로서 문제가 심각하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입던 옷가지, 부엌일용품등을 제외하고 거의 빈손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후의 재산분배라든가 남편과 사별하여 상속문제가 생겨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결혼생활 중 아내의 협력도가 평가받게끔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조선일보, 73. 6. 28).

이러한 변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이전에는 당시 서구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여권운동이 한국 사회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주요 쟁점이 된 여성문제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차별과 여성들의 불평등(이혜숙, 2002)이었고, 신문을 통해 이들의 문제 제기가 일반 독자에게 전달되었다⁷⁾.

당시 신문에 등장한 정보제공유목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구의 영화배우나 왕실인사의 이혼소식을 전하거나 다른 나라의 이혼실태를 소개하는 해외토픽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기사들은 당시 서구문화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일종의 가십성 기사로 다루어진 경우로, 현실에서 이혼문제에 직면한 독자들에게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서구 유명인사의 이혼을 다룬 신문기사를 다수 접한 경험이 당시 일반 독자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예측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후반 들어 이혼의 사전예방과 사후적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가정법률상담소는 ... 「정신건강과 가정」이란 주제로 정신건강과 가정파탄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 건전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부부간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게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여성자신들도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조선일보, 78, 10, 12).

1960~1970년대의 이혼현황을 다룬 기사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세분화된 실

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혼을 많이 하는 연령대를 분석하여 보도하거나 과거와 달라진 이혼 유형이나 이혼 소송 제기의 경향, 이혼사유의 변화나 이혼신청자의 변화 등을 대법원의 이혼심판 청구건의 집계나 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신청건의 자료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⁸⁾.

3) 1980년대의 이혼관련기사

1980년대의 이혼관련기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1989년의 가족법 개정을 전후로 하여 사회생활이나 경제적 문제 등에서 그 동안 불평등한 입장에 있어왔던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혼의 문제가 기사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1960~1970년대부터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혼과 관련된 법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개되고, 여성들도 관련 법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소개되었다.

- 6) 물론 이혼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풍토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에 반하는 이혼을 꾸짖는 식의 태도는 1960년대까지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1967. 4. 16일자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생긴 이래 이혼율이 차츰 증가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첫째, 대가족제가 무너지고 핵가족제로 이르는 단계에서 자기희생, 체념으로 살던 유교윤리사상이 부부중심, 개인주의에 이르게 되는데 원인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다.
- 7) 지난 4월 7일 2백여명의 여성계 지도자들은 YWCA 회의실에 모여 현행 가족법은 남녀불평등의 상징적인 법이라고 단정, 그 개정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戶主제도, 둘째 혼인 및 이혼법 그리고 상속법으로서 그 중 호주제도는 혼인, 이혼, 상속에 있어 여자에게 차별을 강요하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호주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73. 6. 22).
- 8) 가정법률상담소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 이혼의 사유는 配偶者の不貞이 1천1백건으로 으뜸이며 배우자와 그의直系尊屬으로부터의 학대(3백90건), 惡意遺棄(3백7건)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혼은 결혼생활 7~8년에 가장 많고, 5~6년, 3~4년, 9~10년의 순. 결혼 1년 미만에 이혼한 부부가 57쌍이 되는가하면 40년 이상 살아온 7쌍의 부부가 헤어지는 등 이혼의 실태는 다양하다(조선일보, 68, 10, 17).

盛況이루는 여성法律강좌-離婚·相續 등에 관심 높아져 ... 법률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自我의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서 결혼 이혼 상승 등 가정문제를 둘러싼 家族法과 재산관리를 위한 경제관계법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조선일보, 81. 2. 27).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신문기사의 경우에 여성들의 불평등한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반대입장도 함께 개제함으로써 신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남녀평등과 여성 인권의 시각에서 이혼을 바라보고 상대적 약자인 이혼여성을 지원하는 사회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문기사를 통해 이혼관련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할 경우에도 계속 한집에 살면서 소송을 벌임으로써 구타를 넘어선 살인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 밖에 매 맞는 아내를 위한 대피소 모자가정 사생아 미혼모를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등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정책이 마련되어야겠다(조선일보, 85. 11. 6).

정보제공 유목의 기사 중 대다수를 차지한 '기타 정보'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해외여성 또는 해외 가정 시리즈의 형식으로 각 나라별 이혼실태나 이혼관련법안, 이혼에 대한 태도를 소개하거나 미국의 여권운동 등 소개하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유명인의 이혼 뉴스를 전달하는 해외토픽은 1960~1970년대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전후 개입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는 1978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1980년대 들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양상을 보였다. 이전에 비해 기사건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대화이 중요하고(동아, 83. 10. 31일자),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을 피하며(동아, 84. 6. 18일자),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는지 서로 반성하기를 실천해야 한다(조선, 84. 10. 13일자)고 지적하며 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부부생활의 기술을 알려주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이상이나 성격이 안 맞는다며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

혼하는율이 가장 높은 것은「권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는 설명 ... 수시로 맞는 권태기를 무난히 넘기다가도 45세 무렵의 폐경기에 이르러서는 심각하고 오랜 만성적 권태기에 시달리는 부부도 많다 ... 부부사이의 원만하고 정직한 대화야말로 「권태기」를 예방하거나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 (동아일보, 84. 9. 19).

1980년대 들어 이혼현황기사 중 이혼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살펴본 여론조사 내용을 다룬 기사가 등장했다. 이는 개인을 가족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의 주체로 인식하면서(이인수, 2003)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이러한 신문기사가 사회 구성원의 이혼 가치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인식 변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KBS 제주방송국이 제주에 거주하는 주부 3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여성들의 생활의식조사」에 의하면 ... 남편이나 시가와 심한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이혼할 수 있다는 주부는 22%이고 51%가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조선일보, 82. 10. 7).

4) 1990년대의 이혼관련기사

1990년대는 이혼과 관련하여 가족법 개정이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은 시기로, 1989년에 개정되어 199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정 가족법의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자주 등장했다. 1990년 1월 공포된 개정 가족법은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여성의 법적 지위를 반영했다. 특히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한 점, 여성의 경제적 무능력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바꾼 것은 큰 변화이다(하용출, 2001). 이혼부부의 재정문제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내용은 이전에는 주로 이혼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인 만큼 당시 개정된 내용 중 특히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혼관련기사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종전에는 이혼을 원하는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권이 인정되지 않아 먼저 이혼소송을 낸 후 남편과 의견이 엇갈리는 재산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야 했으나 새 민법에 재산분할청구제도가 도입돼 올해부터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동시에 내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됐다(동아일보, 91. 2. 1).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경계의 시각 속에 이혼에 비판적인 내용의 신문기사가 눈에 띈다⁹⁾. 그런데 이혼에 대한 1990년대의 비판적 논조는 그 내용에 있어 과거와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1920~1930년대의 경우 이혼의 증가가 우리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의 발로(이강이, 최혜영, 2004)라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지나친 가족해체의 증가가 한국의 미래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우려라든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가 이후에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혼이 빚는 가정과 사회파괴적 현상이 더 큰 문제다. 사회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가정 자녀는 대부분 부모의 이혼이 자기 때문이라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 충동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이젠 이혼문제를 개인의 자유 신장과 권리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선 곤란하다(동아일보, 96. 5. 19).

IMF 이후 이혼 증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당시의 기사 내용¹⁰⁾은 이혼의 발생 양상이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특히, IMF 당시 급속하게 증가했던 이혼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이 오히려 이혼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¹¹⁾, 이혼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이혼을 실태 보도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90년대의 새로운 이혼풍속도가 드러난다. 이혼한 여자와 총각의 결혼(조선, 97. 2. 21일자. 동아, 98. 2. 4일자)이나 우리나라의 이혼여성비율이 세계의 이혼 비율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조선, 95. 9. 19일자. 동아, 99. 8. 2일자) 보도하는 기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혼 양상을 반영한다. 남편이 아닌 아내의 불륜이나 부당대우로 인해 남편들의 이혼 신청이 급증하고 지나치게 부부관계를 강요하거나 반대로 성적 불만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사례가 기사의 내용으로 등장하는 등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혼의 사유가 1990년대 들어 두드러진다.

아내의 불륜-부당대우를 못참는 남편, 반대로 남편의 불륜과 부당한 대우를 못 견디는 아내... 어느 쪽이 더 늘고 있을까? 전자가 더 많아지거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지난해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는 52%,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경우는 48%이다. 이는 94년의 40대 60, 93년의 42대 58에 비해 완전히 역전된 결과이다(조선일보, 96. 2. 9).

이혼 연령에 있어서도 198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는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층의 조기이혼 실태를 다룬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중년기 이후의 이혼 증가, 황혼 이혼의 증가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35세 이상의 중년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96년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8만1천4백건에 달했다. ... 87년에는 35세 미만에서 이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해에는 35세 이상 여성의 이혼율이 더 높았다. 특히 이혼 부부 중 20년 이상 살다 갈라선 부부의 구성비가 10년 전의 4.6%에서 지난해에는 9.6%로 2배 이상 높아졌다(동아일보, 97. 12. 11).

황혼 이혼과 관련하여 남편의 가부장적인 순종 강요를 이유로 70대의 할머니가 낸 이혼소송에 대해 이는

- 9) 가정은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이다. 흔들리는 가정은 사회의 동요를 가져오고 건전한 가정없이 사회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파괴됨은 물론 사회의 안정기반을 파괴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요망되고 있다(동아일보, 91. 9. 8).
- 10) 요즘 고아는 최근 IMF 한파로 실직한 부모들이 버린 아이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 서울지역 보육원의 부모가 살아있는 이혼고아들은 대부분 IMF 한파 이전에 맡겨진 아이들이었다(조선일보, 98. 3. 20).
- 11) 'IMF 쇼크'가 이혼 대란(大亂)을 몰고 왔다. 법원 집계에 따르면 2월의 협의이혼 접수건수는 1만3백74건이었다. 월 1만건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 ...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IMF 쇼크를 계기로 잠재적 갈등이나 문제를 안고 있던 부부 관계가 1차적으로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협의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나 저소득층의 가정파탄과 달리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의 이혼을 의미한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얘기 ... (동아일보, 98. 5. 19).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여성계의 강한 반발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¹²⁾. 이외에도 건강상 문제의 경우,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이혼소송을 낸 경우¹³⁾와 같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질병이 등장하면서 이혼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발견된다.

한편 1990년대의 정보제공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혼을 주제로 한 책이나 연극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일종의 문화비평 기사가 이전 시기에 비해 두드러진다. 이는 이혼이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금기시되는 주제(이현승, 1999)로 과거에는 가급적 외부에 노출하거나 공론화 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1990년대 들어와 이혼을 대중문화와 연결하여 드라마,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다루어보려는 시도가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최근 가정이나 가족을 그린 연극이 부쩍 늘 것은 올해가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이기도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 범죄가 발생하고 이혼이 급증하는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 ... 민중극단의 '이혼의 조건'은 ... 중년부부의 결혼생활위기와 그 내면적 파장을 심도 있게 그려낸 작품으로 현대가정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게 한다(조선일보, 94. 6. 9).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방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등장한 이혼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빈도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1940~1950년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분석대상기사의 연대별 빈도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각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신문의 이혼관련기사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통시적으로 접근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절차는 1920~1930년대 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총 1,741건의 기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정보제공유목의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다음으로 이혼 원인, 이혼 현황, 이혼에 대한 태도의 순서를 보였다. 이혼에 대한 기사는 시대별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990년대 들어 이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실태 분석 및 이혼관련 정보제공 기사의 건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사의 양적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혼에 대한 태도와 이혼 현황, 이혼 원인 관련 기사는 1970년대까지 감소하다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정보제공의 경우 해외토픽의 소개로 1960~70년대부터 갑자기 증가했고, 하위유목 중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관련 기사가 1980년대부터 증가했다. 1990년대의 기사는 모든 유목에서 이전시대에 비해서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 같이 1940~1990년대 이혼관련기사의 주제유목별 빈도 분포의 변화 경향을 살펴보면 이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양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연관됨(곽배희, 2001)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혼과정을 살펴볼 때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1920~30년대까지는 주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신구의 갈등 구도로 이혼 문제에 접근하는 양상(이강이, 최혜영, 2004)을 보였다면, 1940~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빈곤 극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고 점차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1970~80년대에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남녀평등 이념

12)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하나. 가부장적 순종강요에 반발해 황혼이혼 소송을 낸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안된다'며 패소판결을 내린 사건은 이런 문제를 곰곰이 되짚게 한다. ... 여성단체들도 "법원이 여성의 권익신장은 외면한 채 결혼당시의 가치관(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제도)이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동아일보, 99. 12. 10).

1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 ... 이모씨가 남편 문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씨와 원고 이씨는 이혼을 하고 문씨는 원고 이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동아일보, 91. 12. 25).

의 확산으로(곽배희, 2001) 이혼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개인주의적 태도가 급속히 증가했다(이현송, 1999). 1990년대 이후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경향 속에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 양상의 변화와 새로운 이혼 사유가 등장하였다.

둘째, 신문기사를 통해 나타난 이혼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는 주로 관련법과 제도, 정책의 변화과정과 함께 하는 양상을 보인다. 1940년대 이후 이혼관련기사가 신문을 통해 활발하게 등장한 것은 주로 가족법의 개정을 전후해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7년에 제정된 민법 중 가족법이 1958년, 1962년, 1977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1989년에는 대폭 개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시대에 팽배해 있는 전통과 근대의 가치의식의 대립이 문제로 가시화(이인수, 2003)되면서 이혼 문제가 일간신문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1977년에 가족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이혼할 때 자녀면접권이라든가 재산분할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이에 따라 1989년 개정 이전에는 당시 이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가 다수 발견된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촉발과 활발한 논의는 관련 정책이라든가 제도의 변화 논의와 함께 진행됨을 보여주는 바, 이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이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이 이혼관련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신문기사에서 나타난 이혼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이혼사유에 있어서 기타 원인에 속하는 기사가 이전에 비해 다수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덜 근본적인 사유로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남(이현송, 1999;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 2003)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급증한 이혼관련 문화정보 기사 또한 이혼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이해하고 다각도로 이혼의 발생이나 이혼의 의미, 이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려는 한국 사회의 변화 움직임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관심을 가질 만 하다. 이혼을 주제로 한 공연이나 관련 도서를 소개하는 기사는 1980년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1980년대에 7건으로 소수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52건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이혼과 관련된 각종 강연회나 세미나 정보를 알려주고 이혼관련 상담 기관 등을 소개하는 일반정보 기사⁴⁾도 1990년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문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혼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지면으로나마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이혼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화와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신문기사의 내용변화를 통해 이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여건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포착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든 한국사회는 이제 이혼의 발생을 놓고 단순히 찬반을 논하거나 실태 분석 또는 문제점 제기에서 머물기 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 단계 나아간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가정의 구조나 형태가 아닌 가족의 기능을 놓고 이야기되는 건강가정의 개념(조희금, 박미석, 2004)이라는 최근의 움직임을 놓고 볼 때, 소위 이혼가정의 건강성을 키워주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혼'이라는 한정된 주제에 집중해서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족문제의 맥락에서 이혼을 다룬 기사들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족해체'라는 거시적 입장에서 이혼문제에 접근하는 기사들이 등장(예: 조선, 94. 12. 20일자, 동아, 94. 5. 5일자)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연구는 가족문제 중의 이혼에 한정해서 보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가족해체 문제를 다룬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정된 지면을 가진 신문의 특성상 이혼과

14) 이혼관련 상담기관의 경우 이전에는 단순히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혼절차를 도와주는 상담소 소개가 전부였는데, 90년대 들어와서는 이혼자 모임(조선일보, 96. 4. 2일자)을 통한 이혼 후 적응과정을 도와주는 내용이나 재혼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상담소 소개(조선일보, 97. 9. 30일자) 등이 등장했고, 이혼남성의 목소리를 실은 기사(조선일보, 96. 11. 19일자; 동아일보, 97. 6. 12일자)도 등장했다.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절의 신문기사들은 한국사회가 그동안 이혼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편 정보화 사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신문을 비롯하여 대중 전파력이 높은 매체에서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 및 가족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이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의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신문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곽배희(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병찬(1997). 한국가족의 이혼에 관한 일 고찰. *경동전문대학논문집*, 6, 557-575.
 박민자(2002).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문화*, 19(1), 109-135.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서선희(2003). 한국 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93-101.
 옥선화, 김주희, 박혜인, 신화용, 한경혜, 고선주(1998).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1.
 (2000).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0), 157-180.

이강이, 최혜영(2004).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이혼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1. *대한가정학회지*, 42(11), 47-60.
 이림하(2002). 1950년대 여성의 삶과 사회적 담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인수(2003). 한국 가족문제의 유형과 특성. 1940-1980년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21(3), 171-180.
 이준우(1987). 한국신문의 문화적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20-84년 조선,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현송(1999).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법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과문화*, 11(2), 73-97.
 이혜숙(2002). 지역여성운동의 형성과 전개: 진주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1), 195-221.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조영훈(2004). 사회변동, 복지정치, 복지국가의 변화. *한국사회학*, 38(1), 161-184.
 조희금, 박미석(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차배근(1991). 커뮤니티케이션학개론. 서울: 세영사.
 하용출(편)(2001). 한국 가족상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경혜, 강유진, 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한경혜, 이정화(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함인희(1993). 산업화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가족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한국사회학회 93년 전기사회학대회 자료집*, 73-81.

(2005년 5월 24일 접수, 2005년 8월 3일 채택)